아름다운 인생







커버스토리

경기도 양평 용문산

빛의 계절 안으로

1,100년 성상 지켜온 그는
이 땅과 함께 가난과 유약함을 안아들여
스스로의 힘을 길러왔다

그리고 시간 흘러
옷을 갈아입듯
새로운 향기를 덧입듯
환호의 빛으로 일어선다

이 땅의 열기 담아 피어올린 힘으로
오늘이 물들어 간다
우리의 손길도 마음도 물이 든다

소리 없는 행진곡처럼
새로운 빛깔이 된다

현충시설 현장을 찾는다 ⑮

경기도 양평군 용문산지구 전적비

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에서 용문산으로 향하는 길, 용문산관광단지 안 한편에는 높이 6미터에 이르는 웅장한 모습의 용문산지구 전적비가 서 있다.

이곳은 6·25전쟁 중인 1951년 용문산 북쪽 산속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서 국군이 유래 없는 격전을 거듭하며 중부전선을 끝까지 사수해 북진의 발판을 마련한 용문산전투가 있었던 곳이다.

계단을 오르면 네모난 기단 위 거대한 반구 형태의 조형물과 그 조형물에 기대어 반쯤 누운 모양의 동상을 볼 수 있다. 동상은 전적비가 호국영령들의 안식처라는 상징을, 기단 양쪽에 새겨진 조각은 격전의 그날 머리띠를 두르고 적에 맞선 결사대를 보여주고 있다.



전적비는 용문산 전투에서 중공군에 맞서 나라를 지킨 장병들과 학도병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뜻을 받들고자 1979년 세워진 것으로,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호국영령들을 기억하는 상징으로서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.